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하였다.

작년 11월, 영국 국민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하였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이수홍 (044-203-5282)

1. 회의 개요

(배경) 정부간 원전협력 MOU에 따라 원전산업대화체 개최

* 1차('14.4, 서울) → 2차('15.11, 런던) → 3차('17.9, 서울) → 4차('21.1, 런던) → 5차('23.3, 서울)

(일시/장소) '24.5.14일(화) 13:30~18:00 / 영국 런던

(참석자) * 잠정

○ (한국측)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 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 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영국측)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2. 주요 논의사항

한국-영국 원전정책 동향

신규원전 건설방안

첨단원자력기술(SMR, 차세대원전)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핵연료

산업·기술교류